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주거이동 성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Stress and the Inclination to Move

고 경 필*
Ko, Gyeong Pi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how inclination to move can be appeared by understanding the cognition of a resident on stress due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240 housewives living in Chinju were questioned statistical analysis were used with factor analysis,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analysi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str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classified by six factors : indoor facility, educational environmental, indoor structure, air pollution, noise, traffic convenience.
- 2) The extent of a stress from residential environ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 and housing-related variable.
- 3) The str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affected by the direction of house.
- 4) The variable discriminating inclination to move were the str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air pollution), an educational level, the type of housing possession, residential period and the size of house.

I. 서론

주거환경이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 체계의 한 단위로 개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기대,

행동과 태도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지각과 행동과정으로부터 비롯되며 환경에 대한 인지는 인간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환경인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자극을 지각의 결정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최근에는 자극은 하나의 정보일 뿐이며 자극은 자극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지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자율성에 영향을 받으며 지각자는 각기 다른 욕구와 인성에 따라 같은 자극을 다르게 받아 들일 것이다.

환경과 인간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환경 스트레스 접근은 혐오적인 환경자극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중재적인 매개변인으로 스트레스를 사용하였다. 주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물리적 환경으로 작용하여 환경에의 적응능력과 관계가 깊은 가족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대처 방안은 인지된 스트레스의 양과 가족의 대처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처능력이 미약한 가족은 누적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가족의 대처능력에 따라 가족이 희망하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조정이나 적응을 계획하게 된다.

현대 도시 사회의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은 좁은 대지에 많은 인구를 거주시킨다는 숫자상의 이점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그 공급방식이 획일적일 수 밖에 없어 거주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우기 거주자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사회적 문제점들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결코 상쇄내지는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거환경의 스트레스나 가족의 대처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자의 주거욕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량공급 형식의 집합주거내에서 거주자들이 지각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요인을 규명해 보고,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이동 성향을 파악하여, 거주자의 주거욕구에 접근할 수 있는 주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환경 스트레스

현대인은 일상생활속에서 누구나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란 Selye (1956)가 "생활스트레스(the stress of life)"를 발표한 이후로 여러 학자들에게서 관심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아직 일치된 개념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Pearlin 등 (1979)은 스트레스를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 보지 않고 스트레스 원, 스트레스 매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세 차원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스트레스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이 모두 스트레스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하는 행위를 대처행동이라고 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Lazarus와 Folkman(1984)은 문제중심 대처행동과 감정중심 대처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문제중심 대처행동이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변화시키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건설적인 대처행동이라 할 수 있고, 감정중심 대처행동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채 불안을 감소하려는 것으로 감정에 초점을 둔 방어적 대처행동이라고 부른다.

환경 스트레스에 관한 초창기의 연구들은 심리학의 일반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한 물리적인 환경과 인간에 대한 연구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환경의 물리적인 조건보다 사회적, 심리적 조건이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어, 프라이버시의 수준과 자유로운 행동의 제한 등 심리적 요소를 추가했다(Holahan, 1982). 그 이후 Yancy(1971), Newman (1973), Altman (1975), Cohen(1980), Zimring(1981) 등이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인지과정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환경스트레스 접근, 각성접근, 자극의

부담접근, 적응수준 접근, 행동제약 접근, 사회생태적 접근 등을 시도하였다. 환경 스트레스 접근은 환경의 자극들을 스트레스 유발인자로 보고, 혐오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설명하기 위하여 매개변인으로 스트레스를 사용한다. 이 접근은 유발인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환경적·사회적 스트레스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문숙재, 꺾인숙, 1992^a).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숙재, 꺾인숙(1992^b)은 주거환경 스트레스란 가족의 주거요구와 주거환경이 맞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며, 가족에 따라 주거환경 스트레스 유발 요인의 욕구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인 주거환경의 개선보다는 각각의 가족이 당면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켜 주므로써 가정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거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거주자의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남길, 하재명, 1996) 결과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일조장애나 생활소음, 공기오염, 전자기장, 고층 등과 같은 환경요인을 지각하면서 나타나는 일상적 스트레스 반응은 인체에 불안, 피로감, 신체의 여러 면역기능을 약하게 하여 심장이나 호흡기 계통에 여러 만성 질환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노인동거 가족의 주택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연숙, 신화경, 1995)에서는 사생활 침해 공간구조, 수납공간의 부족, 방음, 주택규모, 욕실의 수 등이 주택내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나 노인동거가족을 위한 주거를 계획할 때에는 세대간의 사생활보호가 원활히 되는 공간구조 및 방음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지역적 특성이나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적 특성, 주거특성 등에 따라서 지각과 대처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관련 특성에 따른 제요인들을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주거이동 성향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인 주거가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거이동을 생각하게 되며, 주거이동은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한 규범적 방법의 하나로까지 생각되고 있다(Shumaker 등, 1985).

주거이동은 실행여부에 따라 실제적 이동과 잠재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적 주거이동은 실제로 주거이동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잠재적 이동은 실제 주거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거이동을 원하거나 이동계획을 가지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동에 대한 희망, 계획, 기대 등의 이동성향을 말한다(Morris & Winter, 1978). 실제이동과 이동 성향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 내적 제약과 외적 제약이 가족의 실제 주거이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귀남, 1994).

선행연구에서는 주택규모가 가장 지배적인 이주동기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주거이동은 현재 소유형태 뿐만 아니라 이전 거주지의 소유형태와 연계된 주택소유형태의 변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조성희, 이은주, 1996)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이동경험이 많을수록,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고, 임차자는 소유자보다 이동 지향성이 높은데, 소유자는 근린환경에 대하여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동을 원하지만, 임차자는 주택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주거이동을 지향한다. 또한 주거비 지불능력 변인이 임차자에게서는 주거이동 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서 주

거비에 대한 부담이 임차자에게는 이동의 한 근원임이 밝혀졌다(김미희, 1983).

곽인숙(1989)의 연구에서 주거이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생활주기, 가족의 수입, 주거소유상태, 주거만족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만족을 매개변인으로하여 환경적 변인들이 간접적으로 주거이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주거이동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주거와 규범적인 주거결함에 의한 주거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orris & Winter, 1976).

주거이동 성향에 대한 근린환경 만족도와 관련변인들의 판별력을 알아 본 이커남(1994)의 연구결과 거주기간, 총 만족도, 주거용도 지역, 주택규모, 소득수준이 주거이동 성향을 판별하는 변인이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 1)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
- 2) 주거환경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어떠한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택관련 변인에 따라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
-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택관련 변인이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택관련 변인 및 주거환경스트레스 변인들의 주거이동 성향에 대한 판별력은 어떠한가 ?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각 문항은 총 16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자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경험한 적이 없다'에 1점을, '경험했으며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주거이동 성향에 관한 문항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진주시의 집합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96년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가구의 소득, 거주 연수, 가정생활주기 등을 고려한 층화표집에 의해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276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에서 응답이 미비하거나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24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분산분석, Duncan's test, 단계적 회귀분석,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조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항 목	빈 도	백분율(%)		항 목	빈 도	백분율(%)
연령	30세이하	38	15.8	가 족 생활주기	가정형성기	29	12.1
	31~35세	69	28.8		자녀출산및양육기	54	22.5
	36~40세	54	22.5		자녀교육기	95	39.6
	41~45세	25	10.4		자녀성년기	34	14.2
	46~50세	34	14.2		자녀결혼기	23	9.6
	51세이상	20	8.4		노 년 기	5	2.1
직업 (남편)	자 영 업	73	31.6	직 업 (주부)	자 영 업	44	18.8
	행정관리직	21	9.1		행정관리직	2	0.9
	전 문 직	40	17.3		전 문 직	20	8.5
	사 무 직	56	24.2		사 무 직	29	12.4
	생산기술직	37	16.0		생산기술직	8	3.4
	기 타	4	1.7		기 타	131	56.0
소득	150만원 미만	68	28.4	가족형태	핵 가 족	183	76.3
	150~200만원	57	23.8		확대 가족	24	10.0
	200~250만원	53	22.1		기 타	33	13.8
	250~300만원	26	10.8	학 력	중졸 이하	31	12.9
	300만원 이상	36	15.0		고 졸	97	40.4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49	62.1	주택건축 년 수	1~5년	139	58.2
	전세	73	30.4		6~10년	73	30.5
	기타	18	7.5		11년이상	27	11.3
주택 유형	고층아파트(6층이상)	145	60.4	이주회수	0번	26	10.9
	저층아파트(5층이하)	66	27.5		1번	37	15.5
	연립주택	29	12.1		2번	48	20.1
					3번	54	22.6
			4번이상		38	30.9	
주택 평수	20평이하	51	21.4	거주기간	1년	46	19.2
	21~25평	57	23.8		2년	37	15.5
	26~30평	47	19.6		3년	57	23.8
	31~35평	56	23.4		4년	21	8.8
	36평이상	12	5.0		5년이상	26	10.9
주택의 향	동향	54	22.5	이주 전 주택유형	단독주택	120	53.8
	서향	18	7.5		연립주택	22	9.9
	남향	161	67.1		고층아파트	41	18.4
	북향	7	2.9		저층아파트	40	17.9

* 무응답으로 인해 사해수에 차이가 있음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1~35세(28.8%), 36~40세(22.5%)로 30대가 전체의 51.3%를 차지하였으며, 가족생활주기는 자녀교육기가 39.6%, 자녀출산 및 양육기가 22.5%였다. 직업은 남편의 경우 자영업(31.6%)과 사무직(24.2%)이 많았으며, 주부의 경우에는 기타(56%)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소득은 150만원미만(28.4%), 150~200만원(23.8%), 200~250만원미만(22.1%)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76.3%)이 과반수를 차지하였

다. 학력은 대졸(46.7%), 고졸(40.4%), 중졸(12.9%)의 순으로 고학력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62.1%)인 경우, 주택의 건축년수는 1~5년(58.28%)이, 주택유형은 고층아파트(60.4%)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혼 한 후 이주회수에 대해서는 4번이상(30.9%), 3번(22.6%), 2번(20.1%)의 순이었다. 주택의 평수는 21~25평(23.8%), 31~35평(23.4%), 20평이하(21.4%)의 순이었으며,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23.8%), 1년(19.2%), 2년

(15.5%)의 순으로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현 주택의 향은 남향(67.1%)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향(22.5%)이 많았다. 이주전 주택유형도 단독주택(53.8%)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주거환경 스트레스 구성요인

주거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6개로 나타나 6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해석은 회전된 요인적재치가 .50이상인 변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 1은 수도물 사정, 난방 등 주택의 내부설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부설비'라 명명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alpha = .85$ 였다. 요인 2는 직장, 학교, 교육시설 등 교육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환경'이라 명명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alpha = .75$ 였다. 요인 3은 주택내부 구조의 불편, 화장실, 수납공간, 방의 수 등 주택의 구조에 관한 요인으로 이루어져서 '내부구조'라 명명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alpha = .70$ 이었다. 요인 4는 주택주변의 공해업체, 공기 등에 대한 스트레스 항목으로 이루어져서 '공기오염'이라 명명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alpha = .71$ 이었다. 요인 5는 주택주변의 소음과 집안내의 방음 등 소음과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소음'이라 명명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alpha = .73$ 이었다. 요인 6은 진입로, 주차시설의 불편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차 및 교통'이라 명명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alpha = .53$ 이었다.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부설비요인(27.0%)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환경(12.0%), 내부구조(10.5%), 공기오염(8.9%), 소음(7.2%), 주차 및 교통요인(6.4%)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요인이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71.9% 설명해 주고 있다.

<표 2>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분석

요 인	항 목 구 성	요 인 적재치	eigen value	분 산 백분율	누 적 백분율	Cronbach's α
요인 1 내부설비	수도물 사정이 나쁘다	.90	4.31	27.0	27.0	.85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84				
	더운물 쓰기가 불편하다	.81				
요인 2 교육환경	직장이 멀다	.88	1.92	12.0	39.0	.75
	학교가 멀다	.86				
	자녀교육시설(학원 등)이 불편하다	.64				
요인 3 내부구조	주택의 내부구조가 불편하다	.78	1.67	10.5	49.4	.70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	.75				
	물품의 보관, 정리에 필요한 공간부족	.57				
	방의 수가 적어 불편하다	.55				
요인 4 공기오염	주택의 주변에 공해업체가 있다	.84	1.43	8.9	58.4	.71
	주택 주변의 공기가 나쁘다	.84				
요인 5 소음	주택의 주변이 시끄럽다	.83	1.15	7.2	65.5	.73
	방음상태가 나빠서 집안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린다	.78				
요인 6. 주차 및 교통	진입로가 불편하다	.80	1.03	6.4	71.9	.53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71				

3. 주거환경 스트레스 지각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3).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주차 및 교통(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소음(59.6), 내부구조(49.0), 교육환경(46.8)의 순으로 나타났고, 내부설비(42.0)와 공기오염(42.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진입로의 혼잡이나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주차 및 교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소음인데 이는 공동주택의 방음이 미비하고, 공공질서와 예절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평균*	표준편차*
주 거 환 경 스 트 레 스	내부설비	42.0	20.4
	교육환경	46.8	18.6
	내부구조	49.0	17.6
	공기오염	42.4	21.2
	소 음	59.6	21.6
	주차 및 교통	62.6	21.0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및 표준편차 임.

4.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스트레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 중 내부구조는 학력과 남편의 직업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이 높으며, 전문직, 기타직에 종사할수록 내부구조로 인해 지각되는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공기오염은 연령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41~45세 연령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공기오염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이 높으며, 30세이하, 31~35세이하 집단에서는 낮았다. 소음은 학력에 따라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대졸일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았으며, 중졸이하, 고졸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차 및 교통은 연령과 $p<.05$, 소득과는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51세이상 연령층에서 주차 및 교통으로 인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으며,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251~300만원대, 301만원 이상에서 가장 낮아 소득이 높을수록 주차 및 교통으로 인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연령, 학력, 소득, 직업은 내부설비 및 교육환경 요인과는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58.2%가 건축연수가 5년미만인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내부설비에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어 있는 최근의 추세에 대한 반영이라 하겠다.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스트레스

		내부설비			교육환경			내부구조			공기오염			소 음			주차 및 교통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연령	30세이하	1.96	1.01		2.04	1.08		2.34	0.82		1.95	0.90	b	3.13	1.00		3.20	1.03	a
	31~35세	2.09	1.09		2.33	0.99		2.49	0.98		1.93	1.03	b	2.93	1.06		3.21	1.03	a
	36~40세	2.14	0.95		2.56	0.83		2.40	0.89		2.19	1.12	ab	2.66	1.03		3.20	1.13	a
	41~45세	2.04	1.00		2.51	0.54		2.47	0.86		2.66	1.11	a	3.36	1.07		3.26	0.87	a
	46~50세	2.36	1.04		2.35	0.80		2.65	0.75		2.28	0.95	ab	3.18	1.07		3.16	0.98	a
	51세이상	1.92	0.97		2.08	1.16		2.29	0.84		2.00	1.17	ab	2.95	1.33		2.33	1.07	b
	F	0.765			1.872			0.683			2.288			2.022			2.673		
학력	중졸이하	2.35	1.18		2.26	0.73		2.84	0.80	a	2.24	1.12		3.40	1.14	a	3.02	1.08	
	고 졸	2.10	1.00		2.43	0.98		2.44	0.89	b	2.19	1.10		2.99	1.68	a	3.15	1.08	
	대졸이상	2.03	0.98		2.28	0.94		2.35	0.87	b	2.04	1.00		2.86	1.05	b	3.15	1.03	
	F	1.271			0.800			3.807			0.763			3.153			0.212		
소득	150만원미만	2.27	1.04		2.36	0.92		2.51	0.90		2.25	1.03		3.06	1.10		3.37	1.05	a
	151~200만원	2.18	1.07		2.53	0.81		2.65	0.92		2.16	1.10		2.99	1.11		3.24	0.94	a
	201~250만원	1.94	0.92		2.36	1.04		2.47	0.82		1.85	0.94		3.14	1.13		3.31	0.97	a
	251~300만원	1.82	0.93		2.01	1.00		2.40	0.88		1.96	1.01		2.75	0.95		2.73	1.12	b
	301만원이상	2.08	1.06		2.18	0.90		2.16	0.78		2.36	1.17		2.76	1.02		2.53	1.04	b
	F	1.389			1.742			2.237			1.765			1.042			5.747		
남편의 직업	자 영 업	2.23	1.03		2.49	0.86		2.52	0.89	a	2.45	1.01		3.05	1.07		3.21	0.96	a
	행정관리직	2.11	0.91		2.32	0.96		2.67	0.70	a	2.40	1.31		2.95	1.08		3.00	0.87	a
	전 문 직	1.86	1.04		2.17	0.90		2.05	0.99	b	2.00	1.05		2.66	1.13		2.84	1.12	b
	사 무 직	2.10	0.99		2.28	1.13		2.43	0.85	a	1.92	1.02		3.06	1.01		3.35	1.00	a
	생산기술직	2.28	1.05		2.31	0.84		2.68	0.74	a	2.26	1.08		2.89	0.99		3.28	1.16	a
	기 타	1.17	0.33		1.83	1.00		2.31	1.01	ab	2.00	1.41		3.50	1.58		1.38	0.75	c
	F	1.607			0.930			2.652			1.122			1.083					

1) * p<.05 ** p<.01 *** p<.001

2) D : p<.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주택관련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스트레스
주택관련 변인에 따라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 중 내부구조는 주택 소유형태와 p<.001, 주택평수와 p<.001, 거주기간과는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택 소유형태가 기타인 경우, 주택의 평수는 작을수록 내부구조로 인한 스트레스의 지각이 높았으며, 거주기간이 4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았다.

공기오염은 주택의 향과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택의 향이 남향,

북향인 경우 공기오염으로 인해 지각되는 스트레스가 높았다.

소음은 거주기간과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기간이 2년, 5년 이상인 경우 소음으로 인해 지각되는 스트레스가 높았다.

주차 및 교통은 주택 평수와 p<.001, 주택의 향과는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이었으며, 주택의 평수가 36평 이상일 때, 주택의 향이 서향일 때 주차 및 교통으로 인해 지각되는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 주택관련 변인에 따라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내부구조와 주차 및 교통요인

은 주택관련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소유형태가 자가 아니면거나 주택의 평수가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4년은 제외) 내부공간으로 인해 지각되는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주차 및 교통은 주택의 평수가 적고, 주택의 향이 북향일 때 스트레스의 지각정도가 높았다.

5.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관련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는 것은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관련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6).

내부설비 요인의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택의 향(서향)과 직업이었다. 즉 수도물 사정이나 주택내 난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지에는 주택의 향이 서향인 경우와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내부설비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이 낮게 나타났다.

교육환경에는 주택의 향(서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향이 서향일 경우 교육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이 낮았다.

내부구조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택의 소유형태(기타), 직업(전문직), 주택평수 등으로 11.3%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즉 주택의 내부구조가 불편하거나, 방의 수, 화장실 수, 수납공간의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주택의 소유형태가 기타에 속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으며,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주택평수가 클수록 내부공간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지각정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공기오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의 향(남향)으로 나타났으며,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가족형태와 주택의 향(북향)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의 향이 남향일수록 공기오염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으며,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일수록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이 높고, 주택의 향이 북향일수록 소음에 대한 지각이 낮았다.

주차 및 교통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의 평수, 직업(기타), 소득, 주택의 향(서향, 북향), 거주기간 등으로 22.6%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주차 및 교통에서는 직업(기타)과 소득이 영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주차 및 교통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거주기간이 짧거나 주택의 향이 북향일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높으며, 서향일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낮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택의 향으로 나타났는데, 주택의 향이란 일조와 일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일조는 자외선에 의한 살균, 소독과 복사열에 의한 난방, 채광 등 주거환경조성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으며, 좋은 일조는 실내를 밝게 해주고 실내온도를 높여주며, 습기를 제거해 준다. 또한 일사란 태양으로부터의 복사를 말하는데, 지붕의 형태나 경사도, 건물의 방위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여름철에는 일사량을 많이 받게 되고, 겨울철에는 일사량이 부족하여 거주성이 악화 될 수 있다(윤정숙, 1995). 이처럼 주택의 향은 각 주거의 거주성에 직접적이고도 종합적인 관계를 지닌 요소로서 주거환경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단지설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 주택관련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스트레스

		내부설비			교육환경			내부구조			공기오염			소음			주차 및 교통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주택 소유 형태	자 가	2.06	1.02		2.35	0.94		2.32	0.86	b	2.18	1.09		2.97	1.09		3.01	1.16	
	전 세	2.21	1.00		2.22	0.88		2.53	0.80	b	2.08	0.97		2.89	1.00		3.32	0.85	
	기 타	1.96	1.05		2.76	1.03		3.25	0.92	a	1.83	1.08		3.50	1.29		3.33	0.64	
	F	0.695			2.500			10.337***			0.943			2.400			2.587		
주택 평수	20평이하	2.07	1.05		2.25	0.92		2.91	0.87	a	2.07	1.07		3.14	1.16		3.42	0.84	a
	21~25평	2.25	1.08		2.33	0.88		2.49	0.79	b	2.12	1.02		3.05	1.09		3.39	1.03	a
	26~30평	2.21	1.06		2.28	0.97		2.44	0.85	b	2.34	1.24		2.88	0.94		3.00	0.99	a
	31~35평	1.95	0.85		2.46	1.02		2.07	0.85	c	1.99	0.88		2.88	1.06		3.07	1.16	a
	36평이상	1.95	1.06		2.36	0.86		2.34	0.84	bc	2.12	1.12		2.95	1.20		2.45	1.00	b
	F	0.871			0.374			6.906***			0.747			0.562			5.457***		
거주 기간	1년	2.12	0.96		2.25	0.95		2.28	0.75	b	1.90	0.85		2.88	0.86	b	3.47	1.07	
	2년	1.99	1.05		2.09	0.78		2.29	0.90	b	2.03	0.92		3.28	1.03	a	3.05	1.01	
	3년	1.90	0.97		2.61	1.01		2.61	0.91	a	2.16	1.12		2.92	1.13	b	3.14	0.87	
	4년	1.90	0.98		2.14	0.82		2.01	0.90	b	2.05	1.24		2.40	1.03	b	2.83	1.33	
	5년이상	2.34	1.05		2.37	0.93		2.63	0.85	a	2.30	1.12		3.10	1.16	a	3.05	1.09	
	F	1.937			2.323			3.508**			1.164			2.687*			1.800		
주택 의 향	동향	2.19	1.13		2.35	1.17		2.53	0.93		1.83	1.00	c	3.03	1.05		3.29	1.02	b
	서향	1.67	0.78		1.89	0.69		2.19	0.99		1.86	0.89	c	2.61	1.05		2.58	0.97	c
	남향	2.11	1.01		2.38	0.87		2.47	0.84		2.23	1.07	b	3.05	1.09		3.10	1.05	b
	북향	2.38	0.78		2.71	0.41		2.29	0.96		2.64	1.11	a	2.21	0.86		4.07	0.98	a
	F	1.406			1.888			0.764			2.944*			2.181			4.095**		

1) * p<.05 ** p<.01 *** p<.001

2) D : p<.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6>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회귀분석

내부설비			교육환경			내부구조		
변인	B	β	변인	B	β	변인	B	β
주택의 향(서향)	-0.54	-0.14*	주택의 향(서향)	-0.49	-0.13*	주택소유형태(기타)	0.73	0.21***
직업(기타)	-1.00	-0.13*				직업(전문직)	-0.36	-0.15*
						주택평수	-0.13	-0.15*
Constant	2.168		Constant	2.368		Constant	2.825	
R ²	0.034		R ²	0.018		R ²	0.113	
공기오염			소음			주차 및 교통		
변인	B	β	변인	B	β	변인	B	β
주택의 향(남향)	0.33	0.15*	가족형태	0.23	0.15*	주택평수	-0.01	-0.14*
			주택의 향(북향)	-0.83	-0.13**	직업(기타)	-1.95	-0.24***
						소득	-2.90	-0.24***
						주택의 향(서향)	-0.71	-0.17**
						주택의 향(북향)	0.82	0.13*
						거주년수	-0.03	-0.13*
Constant	1.921		Constant	2.680		Constant	4.356	
R ²	0.021		R ²	0.039		R ²	0.226	

* p<.05 ** p<.01 *** p<.001

6. 이주성향에 대한 판별력

거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택관련 변인 및 주거환경 스트레스 변인이 주거이동을 할 집단과 이동을 하지 않을 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 방법은 변수의 판별력에 근거하여 적합한 변수로부터 투입되어 판별함수를 구성하고, 판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변수는 판별함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단계적 판별분석(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표 7>에는 판별함수의 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종속변수가 이주를 할 집단과 하지 않을 집단의 두 집단이므로 최대 1개의 판별 변수가 산정되었다.

<표 7> 이주성향에 관한 단계별 중판별함수 분석

변 인	Wilk's Lambda	F
스트레스(공기오염)	.78	2.01***
학력	.84	9.52***
주택소유형태(전세)	.80	8.19***
주택소유형태(기타)	.79	3.75***
주택의 거주기간	.82	5.77***
주택평수	.90	17.56***

판별함수 1 Wilk's Lambda = .7795
 Canonical Corr = .4696 Chisquare = 58.054***

*** p<.001

판별함수의 χ^2 값이 58.054로서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판별식에 의한 판별점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함수의 판별능력을 나타내는 정준 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는 0.4696이므로 공기오염, 학력, 주택소유형태(전세, 기타), 현주택 거주기간, 주택평수의 여섯개 판별변수들이 이주유무 분산의 41.96%를 설명하고 있다.

단계별 중판별분석에서는 F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의 판별력이 크다. 따라서 <표 7>에서 이주성향의 유무에 차이를 미치는 판별 변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력이 큰 순서대로 제시하면 주택평수, 학력, 주택소유형태(전세), 주택의 거주기간, 주택소유형태(기타), 스트레스(공기오염)의 순이다.

이주 또는 적응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표 8> 유의적으로 포함된 변인은 공기오염, 학력, 주택소유형태(전세, 기타), 주택의 거주기간, 주택평수의 6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각 점수들이 대상들의 소속집단을 판별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나타내주는 표준화된 판별계수를 보면 주택평수(-.6277)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학력(.4532)과 주택소유형태(전세 ; .4265)의 순서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공기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나 기타일 경우, 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주택평수가 적을수록 이주 할 집단으로 분류된다. 선행연구에서 이주동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거소유형태이며(윤복자, 백금화, 1991), 거주기간, 총 만족도, 주거용도 지역, 주택규모, 소득 수준이 주거이동 성향을 판별하는 변인이라는 이귀남(199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이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형태가 주거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판별됨에 따라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정책 등 안정된 주거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표준화된 판별계수를 이용하여 판별점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판별점수는 분기점(cutting score)과 비교하여 집단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유용하다. 여기서 분기점이 -0.3964²⁾로서 판별점수가 이 값보다 큰 값을 가질 때 이주 할 집단이며, 작은 값을 가질 때 이주 하지 않고 적응할 집단으로 분류된다.

<표 8> 이주성향을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판별계수

변 인	비표준화된 판별계수	표준화된 판별계수
스트레스(공기오염)	.1885	.1994
학력	.1940	.4532
주택소유형태(전세)	.9630	.4265
주택소유형태(기타)	1.0797	.2843
현주택의 거주기간	-.7799	-.3359
주택평수	-.6465	-.6277
Constant	-1.1604	

집단의 중심치 이주 할 집단 = .36631
이주하지 않을 집단 = -.76592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판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판별점수} = & -1.1604 + 0.1885(\text{스트레스}) + \\ & 0.1940(\text{학력}) + \\ & 0.9630(\text{주택소유형태:전세}) + \\ & 1.0797(\text{주택소유형태:기타}) - \\ & 0.7799(\text{현주택의 거주기간}) - \\ & 0.6465(\text{주택평수}) \end{aligned}$$

판별한 결과를 정리한 <표 9>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주 할 집단을 이주 할 집단으로 올바르게 판별한 경우가 69.6%이며, 실제 이주하지 않을 집단을 이주하지 않을 집단으로 올바르게 판별한 경우가 66.7%이다. 따라서 전체 판별적중률은 68.62%이다. 판별함수에 의한 판별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주 할 집단과 이주하지 않을 집단을 분류시킬 수

<표 9> 분류결과표

실제집단	사례수	이주할 집단	이주하지 않을 집단
이주할 집단	161	112(69.6%)	49(30.4%)
이주하지 않을 집단	78	26(33.3%)	52(66.7%)

전체 판별적중률 = 68.62%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류결과에서 판별도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C_{pro}^3 에 의한 판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판별적중률(68.62%)이 판별기준 C_{pro} 의 120%에 해당되는 67.24%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판별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거주자의 주거욕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량공급 형식의 집합주거내에서 거주자들이 지각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요인을 규명해 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주거이동 성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내부설비, 교육환경, 내부구조, 공기오염, 소음, 주차 및 교통의 6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주차 및 교통, 소

$$\begin{aligned} 2) \text{ Cutting score} &= \frac{n_2 c_1 + n_1 c_2}{n_1 + n_2} \\ &= \frac{78 \times 0.3663 + 161 \times -0.76592}{161 + 78} = -0.3964 \end{aligned}$$

n_1, n_2 : 집단의 표본수, c_1, c_2 : 집단의 중심값

$$\begin{aligned} 3) C_{pro} &= a^2 + (1 - a)^2 \\ C_{pro} &= \left(\frac{161}{239}\right)^2 \times 100 + \left(\frac{78}{239}\right)^2 \times 100 = 56.03 \\ C_{pro} \text{의 } 120\% \text{에 해당하는 비율} &: 56.03 + (56.03 + \frac{20}{100}) = 67.24 \% \\ a = \text{집단 1에 속하는 사례수의 비율, } 1 - a = \text{집단 2에 속하는 사례수의 비율} \end{aligned}$$

음, 교육환경의 순으로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공기오염과 주차 및 교통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내부구조와 소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에 따라서는 주차 및 교통이,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내부구조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이었다. 주택관련 변인에 따라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내부구조가, 주택평수와 주택의 향에 따라서는 공기오염, 주차 및 교통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내부구조와 소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주거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째,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의 모든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택의 향으로 나타나 주택의 향이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네째, 주거이동 성향에 대한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관련변인들의 판별력을 알아 본 결과 공기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 스트레스, 학력, 주택소유형태, 주택의 거주년수, 주택평수가 주거이동 성향을 판별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족의 주거요구와 주거환경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택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주거이동을 결정하는데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관련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합주거 계획시 분석 결과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변인들을 고려하여, 집합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택유형의

거주자와 가족의 개별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요망되며, 이와 더불어 주거이동 지향성과 실질적인 주거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인숙(1989), 도시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이 가정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 2) 김남길, 하재명(1996), 주거지에서 환경 스트레스의 지각이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2).
- 3) 김미희(1983), 주거이동 지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3).
- 4) 문숙재, 박인숙(1992^a),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 5) _____(1992^b),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주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 6) 윤복자, 백금화(1991), 아파트 입주가의 이주동기와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 7) 윤정숙(1995), 주거환경학, 문운당.
- 8) 이귀남(1994), 근린환경에 대한 인지와 만족 및 주거이동 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주거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이연숙, 신화경(1995), 노인동거가족의 주택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2).
- 10) 조성희, 이은주(1996),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동기와 주거환경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2).
- 11) 한미현, 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 12) Cohen, S.(1980), Aftereffects of stress on human performance and social behavior :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88(1).
- 13) Pearlin, L. I & Schooler, C. (1979),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 14)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15) Selye, H.(1956), The stress of life, N. Y : McGraw-Hill.
- 16) S. Shumaker & G. Conti.(1985), Understanding mobility in America : Conflicts between stability and change in Altman et. al. Home Environment, Plenum Press.
- 17) Morris, E. W., & Winer, M. (1976), Housing norms, housing satisfaction and the propensity to mo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 18) Zimring, C. M.(1981), Stress and the designed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7(1).